경제교육연구
제32권 3호(2025. 12, pp. 167-198) http://dx.doi.org/10.37060/KJEE.32.3.6

기업가 정신과 혁신: 우리나라 사례를 통한 중등 경제교육과정 보완 연구

황 선 호*

【요약문】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특히 중등학교 과정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이 지속가능성 등 총론의 원칙과는 단절되어 구조적 분절성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분절성이 기업가 정신의 본질인 혁신을 다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하며, 혁신이 곧 사회적 책임의 토대가 됨을 경제학적 원리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슘페터의 5가지 혁신 유형을 분석 기준으로 채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5대 기업의 실제 창업 사례를 재구성하여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적용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가 정신을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분리된 별개의 영역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혁신을 통한 생산 활동 자체가 기업의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이자 이윤 창출과 직결되는 통합적 과정임을 이해하게 돕는 효과적인 교육 대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기업가 정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혁신, 슘페터

* 제1저자,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sunho3137@scnu.ac.kr).

Ⅰ. 서론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innovation-driven economic growth)을 설명한 공로로 조엘 모키어(Joel Mokyr), 필립 아기옹(Philippe Aghion), 피터 하윗(Peter Howitt)에게 수여되었다. 모키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술 진보의 전제 조건을 규명했으며, 아기옹과 하윗은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이론을 통해 지속 성장을 설명했다. 이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는 슘페터(Schumpeter) 이론의 현대적 계승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아기옹과 하윗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현대적 경제 성장 모델로 정립한 선구자들이다(Schumpeter, 1934; Aghion and Howitt, 1992).

이들의 연구는 기술 혁신이 기존 산업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과 필연적으로 충돌함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에 개방적인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슘페터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적 행위(신제품 개발 등)가 아니라 기존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사회적 과정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이 본 연구가 II장에서 지적할 교육과정의 한계, 즉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문제를 극복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기옹과 하윗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의 갈등과 분절은 교육적으로 없애야 할 이분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갈등 자체가 혁신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현상이며, 이 갈등을 관리하는 사회적 환경이야말로 혁신을 이루는 통합적 과정이다.

급격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원조, 높은 교육열, 정부의 강력한 수출 주도 정책 등 다양한 거시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혁신으로 구현되고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 주체였던 기업가 정신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조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공교육 분야에서도 반영되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중학교 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주요 학습 요소로 명시하며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책임 있는 태도를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

아기옹의 연구가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 개혁을 경제 성장의 사례로 분석한

것처럼 기업가 정신은 한국 경제의 특수한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Aghion, Guriev and Jo,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학술적 배경 속에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업가 정신 교육 목표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교육과정이 기업가 정신을 주로 윤리적·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슘페터리언 관점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이라는 경제적 본질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혁신(innovation)을 매개로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로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현대 경제학의 표준적 논의에서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기여 중 하나는 혁신을 통한 성장에 있기 때문이다. 아세모글루·레이브슨·리스트(Acemoglu, Laibson and List, 2021)의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따르면, 한 사회의 지속적인 생활 수준 향상은 단순한 물적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기술 진보와 이를 통한 창조적 파괴 과정에 의해 주도된다. 즉, 기업가가 낡은 생산 방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활동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빈곤을 해결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가장 근원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원 빈국이었던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가들이 보여준 슘페터적 혁신은 빈곤 탈출이라는 당시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한 핵심 동력이었다. 따라서 슘페터적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재구성하는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지향하는 미래 역량(지속가능성)과 각론에서 다루는 사회적 책임(윤리)을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넘어 삼성, 현대, SK, LG, 포스코 등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룬 주요 대기업들의 실제 창업 이념과 기업가 정신을 분석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적 자원으로, 추상적 개념 학습을 보완하고 혁신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기업가 정신 관련 성취기준과 해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및 총론 문서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혁신, 생산 키워드

의 포함 여부와 성취기준 해설의 맥락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교육부, 2022; 국가교육위원회, 2024). 이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적 변화와 기업가 정신 내용 요소 간의 괴리를 분석하였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교육부, 2015).

다음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다룬 학술 논문, 한국경제 60년사 등의 거시경제사 자료 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적 맥락의 핵심 가치를 도출한다(김한원, 2010; 문병준, 2010; 박재용, 2010; 손용석, 2010; 임형록, 2010; 서갑경, 1997;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최종적으로, 이 두 축의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경영사적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및 투입요소 교육의 부재,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분절 등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으로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다. 특히 경제의 한 축인 공급(Supply) 부문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균형 잡힌 경제학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이러한 사례들은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선별·재구성된 교육 내용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 목표를 분석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 총론과 내용 요소 간의 괴리 분석,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의 한계와 근거를 마련한다. III장에서는 슘페터리언의 관점을 포함한 기업가 정신의 일반적 정의와 한국적 특성을 정립한다. IV장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구체적인 기업가 정신 사례를 슘페터의 혁신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V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수업에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기업가 정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과 실천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도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일환으로 기업가 정신을 핵심 내용 요소로 포함하며 학년군별로 그 내용을 차별화하여 제시한다.

1. 중학교 과정: 사회적 역할과 윤리적 책임의 내면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는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중학교 1~3학년의 내용 체계 중 경제 영역에서는 지식·이해 요소로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을 명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성취기준 [9사(일사)08-03]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 토의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9사(일사)08-02]가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라고 명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22 개정에서는 활동이 이해와 태도 함양이라는 내면적 학습에서 설명과 토의라는 외현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맥락과 실제적 적용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해당 성취기준의 해설은 기업가 정신의 교육 목표를 정의적(情意的)이고 실천적인 역량 함양으로 설정하고 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업과 기업가를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상호 배타적이거나 긴장 관계에 있는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혁신을 통한 이윤 창출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여라는 통합적 관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칫 학생들에게 기업의 역할을 이익 추구(경제)와 윤리적 실천(책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단계의 기업가 정신 교육은 경제적 본질보다는 윤리적 활동과 공동체 기여를 강조하는 도덕적·시민적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2. 고등학교 과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와 달리 기업가 정신이 독립적 내용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의 '(3)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영역 해설에서 성취기준 [10통사2-03-02]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1)2)]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10통사2-03-02]의 해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언급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의 [10통사05-02]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가 시장경제의 발전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기업가 정신을 다룬 것과 대비된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업가 정신의 논의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더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의 맥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단계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심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 시스템적 사고의 요구

성취기준 [10통사2-03-02] 해설은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다루는 맥락에서 기업가 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가 단순히 이윤 추구자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주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자칫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과 시장 실패 간의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제로만 해석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즉,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업의 능동적 역할이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에 가려져 충분히 조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확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업가 정신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권익, 윤리적

---

1) [10통사2-03-0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탐구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과목이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단원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별도의 성취기준으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에서는 해당 단원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통합사회2>로 재편되었다. 특히 개편된 <경제> 과목의 내용 체계에서는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역할만이 별도로 명시되었을 뿐, 가계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독립적인 내용은 제외되었다.

소비 등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이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제 해결 역량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정작 그러한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원동력인 생산과 혁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교육과정 총론과 내용 요소 간의 괴리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총론은 지속가능성을 미래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실행 동력에 대한 언급은 추상적이다. 반면 각론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주로 윤리적 규범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론의 목표(지속가능성)가 각론의 실천(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용어의 유무를 떠나 목표와 수단을 매개하는 핵심 기제로서 혁신의 개념이 누락된 것이 근본적인 분절의 원인이다. 이러한 상위 수준의 교육과정 목표(총론)와 교과별 세부 내용(각론) 간의 연계 부족은 지속가능한 혁신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과정의 지향점이 수업 현장의 실제 내용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태도라는 2015년의 관점에 그대로 머무르며, 총론이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등 핵심 역량과 기업가 정신의 본질적 속성인 혁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괴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성장을 다루는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경제 성장([9사(일사)10-01])은 그 자체의 동력보다 발생한 문제의 해결([6사11-02])이나 국내 총생산의 영향 등 결과론적·비판적 시각에서 주로 조명된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오직 지속적인 공급 충격(positive supply shock)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그 공급 충격의 핵심 동력이 바로 혁신이라는 연결 고리가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내용 요소 간의 괴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의식, 즉 이윤과 사회적 책임의 분절과도 일치하며, 이에 따라 슘페터적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더욱 강화한다. 혁신에 대한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지향하는 미래 역량과 각론에서 다루는 사회적 책

임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이기 때문이다.

4. 선행연구로 본 교육과정의 한계와 과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이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선행연구와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교육 시스템은 기업가 정신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시중에 보급된 교과서가 아닌 공식 교육과정 문서(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와 해설서에 나타난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분석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의 맥락과 표현이 일부 변화하였음에도(예: 지속가능발전 맥락으로의 이동),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책임, 윤리적 역할과 연계하여 다루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계(예: 생산 교육 부재, 이윤/윤리 분절)를 지적한 선행연구의 분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논거를 제공한다.

첫째, 기업가 정신의 본질인 생산과 혁신 개념이 부재하다. 우선 생산 기능의 부재 문제는 김태환(2022)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김태환(2022)은 공통 교육과정(초·중학교)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비 활동에 교육을 편중시킨 결과, 기업의 본질적 활동인 생산은 투입요소나 비용 같은 핵심 개념이 생략된 채 피상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산 기능의 부재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인 혁신(innovation) 개념의 부재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처럼 생산과 혁신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기업가 정신이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기업의 역할을 편향되게 인식시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한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혁신이나 창조적 파괴가 경제 영역의 핵심 내용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확인된다. 경제 성장([9사(일사)10-01], [12경제03-02])는 다루어지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 충격(positive supply shock)으로서의 혁신에 대한 내용요소가 부재한 것이다.

둘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분절이다. 김태환(2023)은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을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 정작 선택과목인 <경제>에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역할만을 제시할 뿐 사회적 책임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2022 개정 <경제> 과목에서는 '경제 주체의 역할' 부분마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저자는 우려한다. 즉, 윤리적 기업가와 이윤 추구 기업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자선적 행위가 아니라 이윤 창출 과정 속에서, 즉 이윤을 매개로 실현될 때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경제교육도 이윤과 책임의 통합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김태환, 2023).

국내 경제교육 연구의 맥락에서 이러한 분절성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표 1>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현행 교육과정의 특정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의 관계

	분석대상	논의
김태환 (2022)	초·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 소비편향적 교육 - 생산기능(투입요소, 비용) 교육 부재 → 생산-분배-소비 통합 필요
김태환 (2023)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분절 → 사회적 책임의 이윤 매개적 통합 필요
이소연 (2022)	교육과정 변천사 (~2015)	- 2007 개정 이후 경제 윤리, 시민적 역할 교육이 약화 → 경제교육의 이론화와 통합사회의 윤리화 초래
본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 상기 논의(생산 부재, 분절)에 동의 - 혁신 개념의 부재를 추가로 지적 - 슘페터 사례를 통한 통합 방안 제시

이러한 분절성의 역사적 기원은 이소연(2022)에서 찾을 수 있다.[3] 이소연(2022)은

3) 이소연(2022)은 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변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생활 경제> 과목의 '기업과 창업 활동' 단원에서 기업과 기업가 정신이 처음 다루어졌으며, 이는 생산자의 역할을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가로까지 확장한 데에 의미가 있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인 <경제>의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단원과 교양 과목인 <실용 경제>의 '취업과 창업' 단원 모두에서 기업가 정신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의 '시장경제와 금융' 단원에 기업가 정신이 주요 학습 요소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도 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경제교육과정의 변천을 분석하며, 제7차 교육과정(1997) 시기에 기업가 정신이 경제 윤리와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2007 개정 이후 경제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민적·윤리적 맥락의 교육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이소연, 2022). 이러한 경향, 즉 경제 교과의 이론화와 시민적 맥락의 약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며 경제 과목의 이론적 접근과 통합사회의 윤리적 접근이라는 구조적 분절로 고착화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기본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계를 지적한 선행 연구의 비판적 평가는 현 교육과정을 고찰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현행 교육과정은 초·중학교에서는 기업의 생산 기능을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고, 고등학교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별개의 과목에서 분절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혁신을 통한 이윤 추구와 사회적 역할 수행의 통합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Ⅲ.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앞선 II장의 분석을 통해 현행 교육과정이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적 범주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적 지향점(지속가능성 등)과 내용 요소가 괴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적 의미를 이론적·역사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동기이자,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능동적인 경영 철학이다. 문병준(2010)은 창업이념이 기업을 세우는 원동력이라면, 기업가 정신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기업을 존속시키고 경영하는 정신적 기반이라 구분하며,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1. 슘페터리언 관점: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 정신의 고전적 정의는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로부터 비롯된다. 슘페터는 기업가를 단순한 경영자나 자본가가 아닌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는 주체로 보았다

(Schumpeter, 1934). 즉,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기존의 경제 균형을 파괴하는 혁신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된다:

(1) 신제품의 개발(New Product)
(2)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New Production Method)
(3) 새로운 시장의 개척(New Market)
(4) 새로운 원료나 부품 공급원의 확보(New Source of Supply)
(5) 새로운 조직의 형성(New Organization)

이때 슘페터는 혁신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가와 혁신에 필요한 자금(구매력)을 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본가(은행가)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성낙선, 2005). 슘페터에게 기업가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 왕국(private kingdom)을 세우려는 꿈과 의지, 성공 자체를 위한 정복욕,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즐거움을 동기로 하는 사회 변화의 주체이다(Schumpeter, 1934; 성낙선, 2005, 2025b).

슘페터의 혁신 중심 관점은 20세기 중반까지 비주류로 취급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Paul Romer)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기술 진보와 혁신을 경제 성장의 핵심 내생 변수로 모형화하면서 현대 경제성장론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Romer, 1990). 나아가 2025년 노벨 경제학상 논의를 주도한 아기옹, 하윗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혁신 주도 성장 이론으로 현대화되었다(Aghion and Howitt, 1992). 이들은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이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 및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규명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에 개방적인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슘페터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적 행위(신제품 개발 등)가 아니라, 기존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사회적 과정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연구가 II장에서 지적한 교육과정의 한계, 즉 이윤 추구(경제)와 사회적 책임(통합사회)의 분절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기옹과 하윗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의 갈등과 분절은 교육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이분법이 아니라, 혁신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갈등)이자 관리되어야 할 통합적 과정(사회적 환경)이다.

한편, 슘페터는 혁신의 5가지 유형은 제시했지만, 그 혁신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공백을 남겼다는 지적이 있다(성낙선, 2025a). 이 공백을 메우는 핵심 개념이 바로 모방(imitation)이다. 모방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기업 고유의 루

틴(routine)과 기술의 모호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변형을 낳으며, 이 창조적 모방(creative imitation)이야말로 현실에서 혁신이 발생하는 주된 경로이다(성낙선, 2025a). 따라서 현대 사회과 교육에서 다루는 기업가 정신은 슘페터-로머-아기옹-하윗으로 이어지는 이 혁신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2.2절에서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시스템적 사고 및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동력과도 일치한다.

2. 현대적 정의와 한국적 특성

현대적 기업가 정신의 일반적인 정의는 하워드 스티븐슨(Howard Stevenson)이 제시한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라는 개념과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가 강조한 “기회 포착과 변화 활용”의 체계적인 과정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문병준, 2010):

- 혁신성(innovativeness):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 위험 감수성(risk-taking): 실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모험적인 결단을 내리는 용기
- 진취성/능동성(proactiveness):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

이에 더해, 한국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한 가치를 더한다:

(1) 산업보국과 민족에 대한 기여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던 시대적 소명 속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5대 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졌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으며, 1953년 기준 1인당 GNI 67달러, 농어업 비중이 45%, 제조업 비중은 10%에 불과한 전형적인 농업국가이자 폐쇄경제였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모든 생산 기능이 멈춘 이러한 폐허의 상

태에서 시작된 기업가 정신 여명기(1920~1950년대)의 창업가들은 전통적 유교 가치관과 경제적 빈곤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졌다. 삼성 이병철은 1938년 식민지 하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했으며,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부산에서 고철 수출과 설탕/비료 수입으로 사업을 재건한 후, 1953년과 1954년 각각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제조업에 진출했다. 현대 정주영은 식민지기 강원도 산골의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마침내 자립의 터전을 일구어 1940년 아도 서비스 자동차 수리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6.25 전쟁 중 미군 공사를 수행하며 신용을 얻었다. LG 구인회는 1931년 구인회 상점이라는 포목상으로 시작하여 1947년 사돈 관계인 허씨 가문과 합작하여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화장품인 럭키크림을 생산했다. SK 최종건은 1926년 부농이자 중소상공인의 장남으로 태어나 기계 기술을 익힌 뒤, 1953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 합작회사 선경직물을 인수하여 재건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포스코는 이들과 달리, 1968년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제철 사업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시작했으며, 군인 출신인 박태준이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성장을 국가 경제 재건 및 민족의 부흥과 동일시하는 애국적 사명감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삼성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인재제일(人材第一), 합리추구(合理追求), 포스코 박태준의 제철보국(製鐵報國), 현대 정주영의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사명감이라는 경영 이념에 응축되어 있다(박재용, 2010; 김한원, 2010; 임형록, 2010).

(2) 정부 주도 개발 계획과 위기 극복

이러한 0세대의 창업 기반은 1960년대 제1세대로 이어진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주도형 공업화와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명확한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에 따르면, 1960년대의 수출입국(輸出立國) 기조와 1970년대 중화학공업(HCI) 육성) 정책은 정부가 명확한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금융, 조세감면 등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시기였다. 이는 1953년 45%에 달했던 농어업 비중이 1970년대 말 20% 이하로 급감하고, 제조업 비중이 10%에서 20% 이상으로 급증하는 폭발적인 산업 구조의 재편 과정과 궤를 같이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이 시기 기업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에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를 포착했다. 따라서 IV장에서 분석할 5대 기업의 혁신 사례는 이러한 정부 주도 성장 모델 하에서 기업가들이 국가적 과제(수입대체, 수출증대, 기간산업 건설)를 수행하는 민간 부문의 주체로서 기능한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업가들의 혁신 활동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넘어 정부의 경제 개발 기조에 부응함으로써 경제교육의 학습 맥락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역사적 사례로 이해된다.

SK 최종건의 패기(覇氣)와 개척자 정신, 현대 정주영의 캔두이즘(Candoism)과 "임자, 해봤어?"라는 도전정신, 포스코 박태준의 군인적 사명감에 기반한 '우향우 정신'은 한국형 기업가 정신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들은 탑다운(top-down) 방식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 상황에서 조직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정신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LG 구인회의 인화단결(人和團結)과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경영 철학으로 기능하기도 했다(문병준, 2010; 정주영, 1991; 임형록, 2010; 손용석, 2010; 송복 외, 2012; 조용경, 1995).

따라서 사회과 교육의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은 슘페터리언들이 강조한 혁신 능력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윤리적 책임,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실천적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합적 이해

통상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윤리적 준수나 자선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캐롤(Carroll, 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① 경제적 책임, ② 법적 책임, ③ 윤리적 책임, ④ 자선적 책임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캐롤은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required)하는 의무인 반면, 윤리적 책임은 기대(expected)하는 것, 자선적 책임은 단지 희망(desired)하는 것으로 성격을 달리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창출 활동 자체가 사회적 책임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그 토대가 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제1의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다른 모든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선행 조건에 해당한다. 즉, 이 네 가지 책임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총체적 사회적 책임(tot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구성한다. 따라서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며,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고용 창출, 사회 공헌, 윤리적 소비 촉진과 같은 상위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기업가 정신은 단순한 태도적·도덕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혁신 선택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핀다이크와 루빈펠트(Pindyck and Rubinfeld, 2019)에 따르면 기업의 혁신 활동은 등량곡선(isoquant) 상에서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결합하여 비용을 최소화(cost minimization)하거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현대의 사력댐 건설은 자본(콘크리트)을 노동과 자원(자갈)으로 대체한 생산요소의 혁신적 대체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SK와 포스코의 원료 확보는 공급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직적 통합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에게 이윤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아세모글루·레이브슨·리스트(Acemoglu, Laibson and List, 2021)의 경제학원론 교과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광의의 기술 진보(technology progress)로서 기능한다. 이들은 이러한 기술 진보가 촉발하는 창조적 파괴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1인당 GDP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동력임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한국 1세대 기업가들이 강조한 사업보국은 단순한 애국적 수사로만 볼 수 없다. 이는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이 곧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길이라는 경제학적 원리를 한국적 맥락에서 실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이 곧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들의 신념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적 책임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기업의 혁신은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핵심이며, 사회적 책임은 그 위에서 확장되는 윤리적·자선적 층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은 대립하거나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의 확장이라는 선후적·구조적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교육과정 분석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소비를 강조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경제적 책임과 혁신 과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기업 활동의 실제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학생들은 기업이 왜 혁신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혁신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의 기반을 강화하는지 이해하지 못

한 채 도덕적·윤리적 담론만을 학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가르칠 때에는 그 전제 조건인 혁신과 경제적 책임의 의미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교수·학습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Ⅳ. 슘페터의 혁신 유형으로 본 한국 기업가 정신 사례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교육과정의 한계(즉, 생산 교육 부재와 이윤과 윤리의 분절)와 III장에서 정립한 슘페터의 5대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 주요 기업(삼성, 현대, SK, LG, 포스코)의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한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단순한 경영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II장에서 제기된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선별·재구성된 교육적 제안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이나 새로운 원료 확보 사례는 김태환(2022)이 지적한 생산과 투입요소 교육의 부재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이러한 혁신 사례들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생산 활동이라는 본질적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성장이 동시에 달성되는 통합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한편, 슘페터의 혁신 이론은 혁신의 기원에 대한 공백이 있으며, 이 공백을 창조적 모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성낙선, 2025a). 본 장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1세대 기업가 사례, 예컨대, 포니, 럭키크림, 단양 시멘트 공장 등은 선진국의 기술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전쟁 직후, 자본 부족, 내수 시장 부재 등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창조적 모방을 통해 슘페터적 혁신을 성공시킨 사례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주요 사례를 슘페터의 5대 혁신 유형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

1. 신제품의 개발

슘페터가 제시한 첫 번째 혁신 유형은 소비자가 아직 알지 못했거나 새로운 품질을 지닌 재화를 도입하는 신제품 개발이다. 이는 1960년대 정부 주도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수입대체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표 2> 5대 그룹의 슘페터 혁신 유형별 사례 요약

기업	1. 새로운 제품 개발	2.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3. 새로운 시장 개척	4. 새로운 원료/부품 확보	5. 새로운 조직 형성
삼성 (이병철)	· 반도체(64K D램) · 제일제당(설탕) · 제일모직(직물)		· 반도체 시장 진출 (미-일 마찰기 활용)		· 신입사원 공채 제도 (1957년)
현대 (정주영)	· 포니(최초 고유 모델)	· 소양강 사력댐 · 울산 조선소 (조선소/선박 동시건조) · 유조선 공법(서산간척)	· 중동 건설 시장 (주베일 산업항 자재 운송)	· 단양 시멘트 공장 · 포항제철 방문하여 철강 확보	· 그룹기획조정실 통한 전자 산업 진출
SK (최종건/ 최종현)	· 폴리에스터 (불황기 개발)	· 선경직물 공장 재건 (자체 기술)		· 대한석유공사 인수 (수직 계열화)	· 인재중시 경영(삼고초려) · 여직원 한글 교육 · 한국고등교육재단
LG (구인회)	· 럭키크림(국산화장품) · 라디오 (A-501, 국산전자제품)			· 호남정유 설립 (플라스틱 원료 확보)	· 인화단결 (허씨 가문과 60년 동업)
포스코 (박태준)		· 일관제철소 건설 · 역진 방식 (자금 조달) · 파이넥스(FINEX) 공법		· 글로벌 공급망 개척 (철광석/유연탄)	· 교육보국 (제철장학회, 포항공대 설립)

LG 구인회는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의 국산 화장품 럭키 크림을 개발하며 수입품을 대체했다. 이는 국민생활편의주의라는 그의 창업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나아가 그는 국가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1958년 금성사를 설립하였으며, 수많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9년 국내 최초의 라디오(A-501) 생산을 감행했다(문병준, 2010). 이는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제품을 국산화하여 플라스틱, 전자, 석유화학공업 등 근대적 기업군을 형성하고자 한 그의 기술혁신주의가 발현된 결과였다. 동시에 수입대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혁신 사례이기도 했다(손용석, 2010).

현대의 경우, 정주영이 1968년 미국 포드사와 코티나를 합작 생산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4년 독자 기술로 개발한 포니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세계 16번째)이자 100% 국산 부품으로 제작한 첫 자동차였다(성낙선, 2025b). 이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자동차라는 제품을 당시 국내 시장에 없던 고유 신제품으로 개발하여 자동차 산업의 지평을 연 사례이다(임형록, 2010).[1)]

더 나아가, 삼성 이병철의 반도체 사업 진출은 이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1983년 도쿄 선언 당시, 이는 내부의 극심한 반대와 불가능하다는 국내외의 평가에 맞선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이병철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을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중한 경영자였다. 그는 요행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합리추구 정신에 기반하여 반도체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자원 반도인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부합하고 타 산업 파급효과가 지대한 첨단 기술제품, 즉 반도체 사업 진출을 전격적으로 선언(도쿄 선언)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였다(박재용, 2010). 이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업보국 이념의 실현이었으며, 1984년 64K D램 양산 성공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SK 최종건은 1959년 대일 통상 중단 조치와 사라호 태풍으로 직물 업계에 불황이 닥쳤을 때, 막연히 호황기를 기다리는 대신 폴리에스터라는 신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이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대응이었으며, 개척자 정신의 발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이러한 1세대 정주영의 개발 정신은 2세대 정몽구에게 계승되어, 2000년대 독자적인 타우 엔진, 감마 엔진 등을 개발해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되는 등 새로운 품질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나아가 2015년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시하고 아이오닉(전기차), 넥소(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며, 신제품 개발의 범주를 내연기관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시켰다.

2.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슘페터의 두 번째 혁신 유형은 해당 산업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김태환(2022)이 지적한 생산과 투입요소 관련 교육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주요 사례라고 판단된다.

포스코 박태준의 일관제철소 건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생산 혁신이다. 1968년, 1970년대 중화학공업(HCI) 육성) 정책의 핵심 인프라였던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본, 기술,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가 경제성 없음으로 판정하여 차관 도입이 무산된 절망적 상황에서 박태준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하여 제철소를 짓겠다는 결단을 내린다(서갑경, 1997; 이대환, 2004; 송복 외, 2012; 조용경, 1995). 조상의 피 값으로 받은 돈이기에 실패는 곧 죽음이라는 우향우(右向右) 정신(실패하면 모두 동해 바다에 빠져 죽자는 각오)으로, 그는 1c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가며 완벽한 시공을 추구했다(송복 외, 2012; 조용경, 1995). 무엇보다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통상적인 공정(제선-제강-압연)을 뒤집어 압연 공장(열연, 중후판)부터 건설하는 역진 방식(reverse method)을 도입했다(김동재, 2012). 이는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중후판, 열연 제품)을 먼저 만들어 수출하고, 그 이익을 공장 건설에 재투자하여 1973년 6월 9일, 마침내 용광로(제선)에서 첫 쇳물을 생산하는 획기적인 생산 자금 조달 방식이었다.

훗날 IBRD의 존 자페(John W.P. Jaffe) 박사는 박태준과 포항제철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으며, 덩샤오핑 또한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어 포스코 같은 제철소를 짓지 못한다고 한탄한 일화가 전해진다. 이러한 평가는 포스코의 건설 과정이 세계 철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전무후무한 생산 혁신이었음을 방증한다(서갑경, 1997; 이대환, 2004). 나아가 포스코는 원료 예비 처리 과정 없이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사용하는 파이넥스(FINEX) 공법을 상용화하여 투자비와 공해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2세대 생산 혁신을 이어갔다.

현대의 경우, 정주영은 여러 상식을 파괴한 생산 혁신을 보여주었다. 1967년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할 때, 일본 측이 수입 철근·시멘트가 필요한 콘크리트댐을 설계했으나, 정주영은 국내에 풍부한 흙, 모래, 자갈을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사력댐(沙礫댐) 공법을 제안하여 30%의 비용을 절감했다(성낙선, 2025b). 울산 조선소 건설 시에는 롱바톰(Charles Longbottom) 회장에게 500원짜리 거북선 지폐를 내밀며 “우리

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논리로 차관을 얻어냈다. 이후 그는 조선소 부지 사진 하나만으로 선박을 수주한 뒤,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택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80년대 서산 간척사업 당시 폐유조선으로 물길을 막은 유조선 공법과, 한겨울 UN군 묘지에 보리싹을 이식해 잔디를 대신한 일화가 있다. 이는 정주영 특유의 현장 중심 경영과 임기응변이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는 획기적인 생산 혁신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성낙선, 2025b; 임형록, 2010).[2)]

SK 최종건은 경성직업학교 기계과 출신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선경직물 공장의 파손된 기계들을 손수 재조립하여 1953년 공장을 재건했다. 이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생산방법을 창조해낸 초기 혁신 사례이다.

3. 새로운 시장의 개척

슘페터가 제시한 세 번째 혁신 유형은 해당 산업이 이전에 진출한 적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한 국가의 경제적 영역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현대 정주영의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0년대 미군 공사를 통해 신뢰와 건설 실력을 쌓은 현대건설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 정주영은 오히려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에서 기회를 포착했다(임형록, 2010).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에 의하면, 이 중동 특수는 오일 쇼크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단숨에 만회하고 외화 획득을 통해 중화학공업 투자의 재원을 마련한 한국 경제사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사업을 따낸 사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공사에서 정주영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울산에서 제작한 철 구조물을 1만 2천km 떨어진 걸프만까지 바지선으로 직접 운송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이는 새로운 수송 방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2유형 혁신이자, 동시에 신시장을 개척한 3

2) 이러한 1세대의 혁신은 2세대 정몽구에게 계승되어 자동차 생산 공정 과정에서 최적화된 부품 공급을 위한 모듈화 시스템 및 전 세계에 균일한 고품질의 공장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표준공장 건설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발전했다.

유형 혁신이 결합된 사례라 할 수 있다(성낙선, 2025b). 사막의 열기와 열악한 환경을 진취성으로 극복하고 중동 시장을 개척한 이 사례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삼성 이병철의 반도체 시장 진출 역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사례다. 그는 1980년대 중반,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1메가 D램 투자를 강행했는데, 이는 감이 아닌 철저한 합리추구에 기반한 것이었다(박재용, 2010). 그는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무역 마찰(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과 도시바 스캔들을 분석하며, 기존 시장의 균열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진입할 새로운 기회 즉,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시장 질서를 개척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다.

4. 새로운 원료나 부품 공급원의 확보

슘페터가 제시한 네 번째 혁신 유형은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 빈국인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과제였으며, 동시에 김태환(2022)이 강조한 투입요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SK 최종현의 대한석유공사(유공) 인수는 이 유형의 가장 극적인 사례이다. 창업주 최종건이 직물 사업을 안정시킨 후, 그의 동생인 최종현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수직 계열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는 1973년 선경유화를 설립하며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한 데 이어, 1980년 국영기업이던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다. 이는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전략 하에 섬유 사업의 필수 원료인 석유를 확보함으로써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결정적 계기였다. 동시에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핵심 과제였던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한 사회적 책임 혁신이기도 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포스코 역시 자원 빈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업이 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확보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개척해야 했다. 박태준 회장은 제철보국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핵심 연료가 되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박태준, 1992). 이는 한국 제조업 전체의 원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성과였다.

LG 구인회 역시 락희화학이 플라스틱 사업에 진출한 이후,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6년 미국 칼텍스(Caltex)와 합작하여 국내 최초

의 민간 정유회사인 호남정유(현 GS칼텍스)를 설립했다. 이는 플라스틱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미래를 내다본 기술혁신의 일환이었으며, SK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국가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닦은 투입요소에 대한 혁신의 사례이다(손용석, 2010).

현대의 경우, 정주영은 건설의 핵심 원료인 시멘트를 확보하기 위해 1958년 충북 단양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였고, 1972년 조선소 건설을 구상할 때는 포항제철의 박태준을 직접 찾아가 제철소의 중후판(철강) 생산 능력과 부두의 수송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투입요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성낙선, 2025b).[3)]

5. 새로운 조직의 형성

슘페터가 제시한 다섯 번째 혁신 유형은 독점의 타파나 새로운 경영 시스템의 도입 등 조직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내부 구조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특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형성을 지적한 것처럼 주요 대기업들의 조직 형성 과정 자체가 슘페터의 다섯 번째 혁신 유형에 해당한다.

삼성 이병철의 인재제일 철학은 1957년 한국 최초의 신입사원 공채제도 도입이라는 조직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는 인맥 중심의 채용 관행을 타파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인재를 선발하려 한 파격적인 새로운 조직 형성 방식이었다. 즉, 기업의 발전은 유능한 경영자에게 달려 있다는 신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LG 구인회의 인화(人和) 경영은 독특한 조직 형성의 사례이다. 그의 인화단결(人和團結) 철학은 만사가 모두 잘되더라도 인화가 깨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도리라는 신념에 기반한다(손용석, 2010). LG는 사돈 관계인 허만정 일가와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를 공동 창업했다. 이후 2005년 GS그룹과 분리될 때까지 약 60년간 이어진 이들의 동업 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으로도 드문 조직

---

3) 이는 2세대 정몽구에 이르러 2010년, 자동차용 강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완공한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자동차 사업의 중심의 수직 계열화를 구성하기 위해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현대제철을 출범시킨 결과물이다. 1세대(정주영)가 시작한 계열화 전략을 2세대(정몽구)가 '쇳물에서 자동차까지'라는 모토 하에 품질 경영과 투입요소 확보라는 목표로 완성시킨 혁신으로, 철광석에서 자동차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사례이다.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다(손용석, 2010). 이러한 인화의 철학은 기업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신념에 기반하며, 세계적인 기업 필립스와의 합작(LG필립스)을 이끌어내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경영 방식으로 작동했다.

현대의 경우, 정주영은 그룹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전자 산업(현대전자) 진출을 결정하는 등 수평적·수직적 계열화를 시도했다(성낙선, 2025b).[4)]

SK 최종건의 인재중시 경영 또한 독특한 조직 문화 형성의 사례이다. 그는 "기업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자금이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은 것처럼 필요한 인재를 삼고초려하여 영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김한원, 2010). 또한 전력 사정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그 시간을 활용해 여직원들에게 촛불을 켜고 한글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인재 양성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은 혁신적 조직 문화의 예시이다. 이는 2대 최종현 회장이 1974년 사재를 출연하여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는 국가적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 조직 혁신으로 이어진다.

포스코 박태준의 교육보국(敎育報國) 역시 인재 확보를 위한 조직 혁신이었다. 허허벌판이었던 포항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어촌 마을이었다. 이에 그는 1971년 제철장학회를 설립하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직원 가족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했다(서갑경, 1997).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향우 정신을 실현할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 혁신이었으며, 1986년에는 MIT

---

4) 2세대 정몽구는 2000년대 그룹 분리 이후 품질 경영과 현장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좀 더 잘 만들 수 없나"라는 집념으로 조직을 혁신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품질 시스템 구축: 그는 '품질이 곧 기업의 모든 것'이라 선언하며 과감한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남양에 세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과의 공동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전문 기업(현대 NGV)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품질 향상을 위한 R&D 중심의 조직 개편이었다.
- 시장 신뢰 확보 (마케팅 혁신): 미국 시장에서 실시한 '10년 10만 마일 보증 정책'은 1990년대 후반 바텀 피더(bottom feeder)라 불리던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결정적인 승부수였다. 이는 회사의 존망을 우려한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재구축해낸 파격적인 조직적·마케팅적 혁신 사례이다.
- 글로벌 공급망 조직: 터키, 미국 등 해외 공장 건설 시, 국내 부품 협력업체들과 대규모로 동반 진출하는 독창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조직처럼 관리하여 글로벌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구축한 현대 스피드의 기반이 된 조직 혁신 사례이다.

나 칼텍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를 설립하여 국가적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닦는 조직 혁신으로 완성되었다(송성수, 2006).

Ⅴ. 교육적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5대 기업의 혁신 사례를 실제 경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업가 정신을 단순히 윤리적 당위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온 현행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들이 혁신의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의 핵심 역량을 경제 영역의 혁신 개념과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 성취기준 연계와 혁신 개념의 재구성

현행 교육과정은 생산요소, 비용, 기술 등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혁신을 독립적인 생산 요소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명시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된 경제 활동의 원리를 확장하여 혁신을 생산요소 대체,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념적 재구성은 학생들이 혁신을 단순히 소비 트렌드의 변화나 기업가의 윤리적 결단으로 환원하지 않고,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를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절차를 제안한다.

2. 기업 혁신 사례를 활용한 교수·학습 절차

본 연구는 학습자의 고차원적 사고력(분석 및 평가) 함양을 위해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 모형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절차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례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정답이 열려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

(ill-structured problem)로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수업은 문제 제시 - 문제 해결(탐구) - 정리 및 평가의 3단계로 구조화되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기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각 단계에서 혁신의 원인(메커니즘)과 결과(사회적 영향)를 단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제시: 문제 제시 단계에서 교사는 당시의 기술적·경제적 제약 조건을 요약하여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비구조화된 문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협소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대규모 장치 산업 진출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학생들은 주어진 제약 조건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제 개념(기회비용, 생산요소, 규모의 경제 등)을 도출한다.

(2)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5대 기업의 실제 혁신 사례(사력댐 건설, 반도체 투자 등)를 생산 의사결정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한다. 이때 교사는 <표 3>과 같은 핵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경제 원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인지적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결과(성공)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의 반대 의견(예: IBRD 보고서)이 가진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후 확신 편향(hindsight bias)에서 벗어나 당시의 불확실성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선택을 경제 논리로 정당화하도록 유도한다.

(3) 정리 및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이 왜 혁신으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갈등(경제력 집중, 노동 문제 등)이 야기되었는지 평가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되돌아보는 성찰(reflection)과 모둠원 간의 동료 평가(peer evaluation) 활동을 수행한다. 나아가 “만약 현재 상황이라면 과거의 성공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과거의 사례를 현재의 문제 해결로 확장(transfer)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혁신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비용을 균형 있게 인식하는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슘페터 혁신 유형별 수업 설계 및 경제 이론 연계

혁신 유형 및 대표 사례	핵심 질문 (발문)	연계 개념
1. 새로운 제품 개발 - 삼성: 반도체(64K D램) - 현대: 포니 독자 모델	[선택과 위험 감수] - Q. 실패할 수도 있는데 왜 거액을 투자했을까? - Q. 모방(안정) 대신 개발(위험)을 택한 대가(기회비용)는?	-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 비교 우위 - 기업가 정신과 위험 감수
2. 새로운 생산방법 - 현대: 소양강댐(사력댐) - 포스코: 역진 방식	[생산요소의 효율적 결합] - Q. 돈(자본)이 없을 때 어떻게 돌(자원)로 대신했나? - Q.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돈(이윤)을 더 벌었나?	- 생산 요소(노동, 자본, 자원) - 비용과 이윤 - 생산성 향상
3. 새로운 시장 개척 - 현대: 중동 건설 - 삼성: 세계 반도체 시장	[시장 확대와 경기 대응] - Q.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 - Q. 위기(오일쇼크)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나?	- 총수요와 경기 변동 - 수출과 무역의 이익 - 시장 규모의 확대
4. 새로운 원료/공급원 확보 - SK: 유공 인수(석유) - 포스코: 해외 광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Q. 옷감 만드는 회사가 왜 석유 회사를 샀을까? (수직적 통합) - Q. 자원 없는 나라 기업이 원료를 구하는 방법은?	- 공급의 변동 요인 (생산요소 가격) - 규모의 경제
5. 새로운 조직 형성 - LG: 인화(동업) 경영 - 삼성: 공채 제도	[사람과 인센티브] - Q. 기계를 돌리는 건 사람이다. 인재를 어떻게 모을까?(인적 자본) - Q. 공채 제도가 왜 인재들에게 동기 부여(유인)가 될까?	- 인적 자본(교육과 훈련) - 경제적 유인(인센티브)

3. 수업 적용 활동 예시

앞서 논의한 절차를 실제 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활동 1.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학생들에게 특정 시기에 기업이 직면했던 자본, 기술, 시장 상황 등 불확실한 제약 조건(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그 다음, 보수적 대안(A안)과 혁신적 대안(B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뒤, 그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혁신을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라 제약 조건 하에서의 합리적 최적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결과보다는 선택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활동 2. 혁신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토론: 혁신의 긍정적 성과(성장, 효율성 등)뿐만 아니라 부정적 파급효과(불평등, 환경 문제 등)를 균형 있게 토론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판적으로 성찰(reflection)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3) 활동 3. 혁신 사례의 확장 및 적용: 이 활동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사례를 발굴하여 슘페터의 5가지 혁신 유형으로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는 학습한 경제 원리를 교실 밖의 새로운 맥락에 적용해보는 전이(transfer) 능력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일반화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의 미래 역량은 혁신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할 때 더욱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실행 및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윤리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 혁신, 시장 창출을 포괄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는 단순한 성공 신화의 나열을 넘어 생산성의 향상, 비용 구조의 변화, 사회적 책임의 경제적 토대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안한 PBL 모형과

같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경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문제중심학습모형을 적용하여 슘페터, 로머, 아기옹 등 혁신 주도 성장 이론과 한국 주요 대기업의 사례를 접목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공통 교육과정은 소비 편향적 성향으로 인해 생산 기능, 투입요소, 비용 등 핵심 경제 개념과 성장의 동력인 혁신에 대한 내용 요소가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분절되어 교육되고 있으며, 특히 2022 개정 진로 선택 <경제> 과목에서 경제 주체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간극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슘페터의 5대 혁신 유형에 따라 제시한 삼성, 현대, SK, LG, 포스코 등 5대 기업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효과적인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주영의 유조선 공법과 소양강 사력댐 건설, 박태준의 역진 방식 제철소 건설, 그리고 SK의 유공 인수는 창업가들의 고차원적인 생산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산 과정의 의사결정을 학생들이 간접 체험하게 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조명한 창조적 파괴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병철의 반도체 투자, 박태준의 제철보국, 그리고 정몽구의 수직 계열화 및 품질 경영 사례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자선이 아닌 이윤을 매개로 수행될 때 가장 효율적임을 방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혁신 사례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실현 과정이자, 1960~70년대 수출입국 및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타당성 있는 경제 활동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전반에 걸쳐 창조적 모방을 통해 혁신을 주도해 온 역사적 지속성과 교육적 가치가 검증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우 등 여타 대기업의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신흥 기업들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물론 압

축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노동 문제 등 구조적인 그림자는 간과해서는 안 될 비판적 쟁점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이 기업가 정신을 혁신과 연계하지 못한 채 윤리적 당위로만 접근하여, 기업을 이분법적 구도로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비판적 교육의 전제 조건으로서 생산과 혁신의 메커니즘(원인)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혁신의 메커니즘(원인)을 먼저 이해한 후, 그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갈등(결과)을 토론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할 때,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미화나 비판을 넘어선 입체적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한 사례 제시를 넘어, 각 기업의 혁신이 어떠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 어떤 생산 의사결정으로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학생의 학습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교수·학습 절차를 제안하였다. 특히 역사적 사례를 비구조화된 문제로 재구성하고, 학습자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출하도록 설계된 PBL 수업 모형은 기존의 윤리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혁신의 메커니즘(원인)과 사회적 갈등(결과)을 단계적으로 탐구하며, 기업 활동을 이분법적 잣대가 아닌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생산·혁신·시장 창출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기업가 정신을 윤리적 영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경제 과목에서도 혁신을 통한 시장 창출의 동력으로 비중 있게 다룰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1세대 창업가 사례뿐만 아니라 1990년대 정몽구 등 2세대 경영인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2010년대 이후 3세대 기업가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혁신 등 중소·벤처기업의 사례까지 포함하는 교육 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 역량 목표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고, 블룸의 고차원적 사고 역량(분석, 평가)을 심화시키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 생활 경제 과목 등을 통해 시도되었으나 2007 개정 이후 약화된 경제 윤리 및 시민적 역할 교육을 경제 발전의 실제적 맥락 속에서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모형 제안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향후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적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교육부.

_____(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202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별책 1, 국가교육위원회.

김동재(2012), 전략적 예지력: 박태준과 포스코의 사례연구, 김명언(편), 박태준의 경영철학 1: 청암 박태준 연구총서 4(pp. 295-327), 서울: 아시아.

김태환(2022), 사회과 공통 교육과정 경제영역에 나타난 기업 관련 내용 분석과 개선 방향 탐색, 시민교육연구, 54(3), 133-158.

_____(2023), 고등학교 경제교육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경제교육연구, 30(3), 87-113.

김한원(2010), 꿈을 향한 열정과 신념의 개척자 정신: SK그룹 최종건 창업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기업 경영, 김한원(편), 한국 경제의 거목들: 5대 그룹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 연구(pp. 173-232), 서울: 삼우반.

문병준(2010), 한국 주요 대기업의 창업이념과 기업가정신 비교 연구, 김한원(편), 한국 경제의 거목들: 5대 그룹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 연구(pp. 285-325), 서울: 삼우반.

박재용(2010), '인재제일'과 '합리추구'로 사업보국을 꿈꾸다: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기업 경영, 김한원(편), 한국 경제의 거목들: 5대 그룹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 연구(pp. 21-70), 서울: 삼우반.

박태준(1992), 박태준 회고록 불처럼 살다, 신동아, 1992년 4월호-8월호(5회 연재), 253-516.

서갑경(1997), 철강왕 박태준 경영이야기, 서울: 한언.

성낙선(2005), 슘페터, 경제발전 그리고 기업가의 역할, 경제학연구, 53(4), 147-171.

_____(2025a), 슘페터의 혁신 이론과 그 공백, 그리고 창조 경제, 동향과 전망, 123, 358-387.

_____(2025b), 슘페터의 혁신 이론과 한국의 기업가 정주영, 동향과 전망, 125, 234-272.

손용석(2010), 할 수 있다, 하면 반드시 된다: LG그룹 구인회 창업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기업 경영, 김한원(편), 한국 경제의 거목들: 5대 그룹 창업가들의 기업

가정신 연구(pp. 127-171), 서울: 삼우반.
송복·최진덕·전상인·김왕배·백기복·이대환(2012), 박태준 사상 미래를 열다, 서울: 아시아.
송성수(2006), 포항제철 초창기의 기술습득, 한국과학사학회지, 28(2), 329-348.
이대환(2004),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 서울: 현암사.
이소연(2022), 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변천, 경제교육연구, 29(1), 61-97.
임형록(2010), 블루오션에 기초한 신속한 추진력: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기업 경영, 김한원(편), 한국 경제의 거목들: 5대 그룹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 연구(pp. 71-125), 서울: 삼우반.
정주영(1991),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서울: 제삼기획.
조용경(1995), 각하! 이제 마쳤습니다, 서울: 한송.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 한국경제 60년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Acemoglu, D., Laibson, D., and List, J. A. (2021), *Economics* (3rd ed.), New York, NY: Pearson.
Aghion, P., Guriev, S., and Jo, K. (2021), Chaebols and Firm Dynamics in Korea, *Economic Policy*, 36(108), 593-626.
Aghion, P., and Howitt, P.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60(2), 323-351.
Bloom, B. S.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NY: David McKay.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Pindyck, R. S., and Rubinfeld, D. L. (2019), *Microeconomics* (9th ed.), New York, NY: Pearson.
Romer, P. M.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S71-S102.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 Study of Korean Cases to Complement the 2022 Secondary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Sun Ho Hwang*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educational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While South Korea's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particularly that of secondary school, emphasizes social responsibility, this study notes that this approach is disconnected from general principles, such as sustainability, causing structural fragmentation. It points out that this fragmentation is the fundamental reason that the curriculum fails to address innovation, which is the essence of entrepreneurship, and explains through economic principles that innovation serves as the found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To overcome this, the study adopts Schumpeter's Five Types of Innovation as an analytical framework. Using this framework, it reconstructs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the founding cases of Korea's five major corporations and proposes instructional procedures based on the Problem-Based Learning model. This approach enables students to understand entrepreneurship as an integrated process where innovative production—intrinsically linked to profit—serves as a core social responsibility.

Key words: Entrepreneurship,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novation, Schumpeter

원고접수: 2025년 11월 10일 심사일: 2025년 11월 12일 ~ 2025년 12월 15일
게재확정: 2025년 12월 15일

---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ho3137@scnu.ac.kr).